

대학생의 장애 이해에 대한 태도 연구

인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김영희

A Study on the Attitude of University Students on Understanding Disabled

Kim, Young-Hee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Inje University

- ABSTRACT -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 of the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to disabled by using modified disability factor scales(DFS, Siller). As for the attitude areas, it relies on the eight categories DFS provides. The 8 categories that specify each attitude area are: generalized rejection, distressed identification, 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authoritarian virtuousness, rejection of intimacy, interaction strain, mainstreaming. This study is based on a series of questionnaire researches conducted on 322 students, over the period from October 19th to November 14th, 2001. The questionnaire carries 50 items, covering the 8 attitude areas and each item has 5 choices. The subjects' responses to each of the areas are examined in their relations to the four conditions, as they are analysed by t-test and one way ANOVA.

The conclusion drawn from the research are as follows:

1.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tudents of the department concerned with the problem of disability, and those of the department unconcerned. But the respons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three areas of generalized rejection, rejection of intimacy and interaction strain(1st condition, $P < .05$).
2. The respons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6 areas except for the two, distressed identification and 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between the students who have volunteered services as helpers of the disabled and those who have no such experiences(2nd condition, $P < .05$).
3. the respons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ose who have volunteered long-time services and those who are far less experienced(3rd condition, $P < .05$).
4.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whether the subjects have disabled persons around them or not. But generalized rejection, authoritarian virtuousness, rejection of intimacy, interaction strain & mainstreaming show significant differences(4th condition, $P < .05$).

5. Generalized rejection, rejection intimacy and interaction strain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every pair of the 4 condition.
6. Distressed identification and 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 show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nditions in every pair of the 4 considerations.

Key words : disabled person, generalized rejection, distressed identification, 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I. 서 론

1. 연구의 의의

장애인은 의료적 치료와 교육적 재활을 제공받아 사회적응을 한다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함께 더불어 살아야하는 정상인들이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현대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대단히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이중적인 갈등구조를 보이고 있다. 生川(1995)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이념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이지만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비호의적이며 자발적인 접촉경험이 많은 자는 현실적 수준에서 호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일반적으로 비호의적이며 이러한 비호의적 태도는 무지로운 편견에 기인한 것이다.

장애인 복지에는 장애인이 갖는 불리한 점을 인적, 물리적, 사회적 제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한 경감, 해소하고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생활조건과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게 하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갖게 되는 사회적, 심리적, 물리적 장애와 이 같은 사회적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가치관의 극복과 개선 내지 제거에 관련을 갖고 있는 활동이다. 장애인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현실은 장애인에 대해 천시, 멸시, 편견, 차별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건전한 사회 참여나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간주되어 왔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연령에 따라서는 젊은층, 성

별에 따라서는 여성, 학력에 따라서는 고학력자가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접촉에 따라 긍정적인 태도로 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을 위해 치료 교육하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과 비관련 학과의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과의 접촉이나 인식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되며 특히 청장년층인 대학생은 사회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태도는 사회가 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일반인들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본 조사연구는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를 파악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며, 장애인 재활에 있어 사회참여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적극적인 자아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가진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려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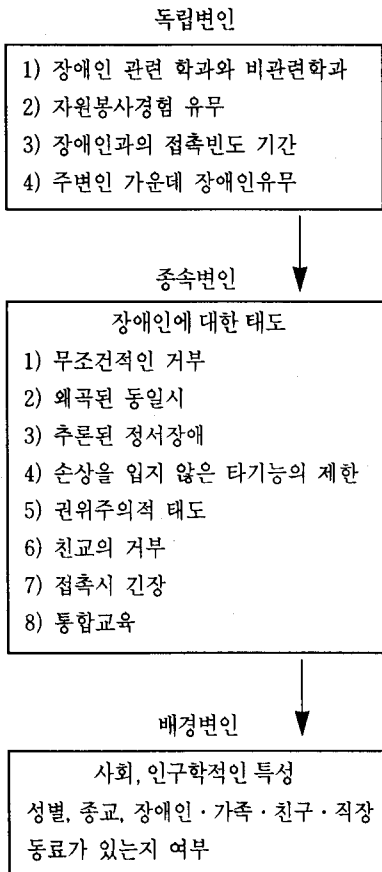
본 조사연구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학과의 학생들이 비관련 학과의 학생들 보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따라서 장애인과 관련된 학과와 비관련 학과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검정해 보고자 한다.

1. 연구분석틀 및 가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관련 학과와 비관련학과,

자원 봉사경험 유무와 접촉빈도, 기간, 종교유무를 독립변수로 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I〉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틀



1) 가설검증적 연구 문제

가설 I: 장애인 관련학과와 비관련학대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장애인 관련학과와 비관련학과 학생들의 1)무조건적인 거부 2)왜곡된 동일시 3)추론된 정서장애 4)손상을 입지 않은 타기능의 제한 5)권위주의적 태도 6)친교의 거부 7)접촉시 긴장 8)통합교육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 자원봉사 경험의 유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 경험의 유무에 따라 1)무조건적인 거부 2)왜곡된 동일시 3)추론된 정서장애 4)손상을 입지 않은 타기능의 제한 5)권위주의적 태도 6)친교의 거부 7)접촉시 긴장 8)통합교육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I: 장애인과의 접촉빈도 기간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장애인과의 접촉빈도 기간이 긴 학생들과 짧은 학생들의 1)무조건적인 거부 2)왜곡된 동일시 3)추론된 정서장애 4)손상을 입지 않은 타기능의 제한 5)권위주의적 태도 6)친교의 거부 7)접촉시 긴장 8)통합교육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V: 가족, 친구, 주변인 가운데 장애인 유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족, 친구, 주변인 가운데 장애인 유무에 따라 1)무조건적인 거부 2)왜곡된 동일시 3)추론된 정서장애 4)손상을 입지 않은 타기능의 제한 5)권위주의적 태도 6)친교의 거부 7)접촉시 긴장 8)통합교육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변인설명

본 가설과 관련된 변인의 개념정의 및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무조건적인 거부요인(generalized rejection) : 장애인에 대한 지식이나 철학도 없이 장애인 분리교육이나 지역사회에서 분리를 바라며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반대하는 태도이다. 이 요인은 장애인차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2) 왜곡된 동일시(distressed identification) : 장애와 죄를 동일시하는 태도이며, 나아가서는 장애와 반응자 자신의 약점을 동일시하는 태도이다.
- (3) 추론된 정서장애 요인(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 장애인은 심리적으로 왜곡된 특성

을 가지고 있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태도이다.

- (4) 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요인(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 장애인의 능력에 관한 요인으로 신체 어느 기관에 장애를 입으면 그 기관의 기능만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불능하게 되는데 그것이 개인 능력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믿는 태도이다.
- (5) 권위주의적 태도(authoritarian virtuousness) : 장애인 편에 서서 장애인을 옹호하는 생각과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은 특별한 재능을 타고 난 것으로 믿으며 이상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 특히 자신은 건강한 자로서 장애인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인내하는 입장에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 (6) 친교의 거부(rejection of intimacy) : 가까운 관계, 특히 친족관계를 거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인에서는 장애인과 결혼하겠느냐 라는 반응자의 직접 감정이 개입되는 문항도 포함되어 있다.
- (7) 접촉시 긴장요인(interaction strain) : 장애인과 접촉할 때 불안, 긴장 또는 창피한 감정을 느끼는 태도이다. 이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은 장애인과의 사회적 접촉을 피하고, 분명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상대하기 싫은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8) 통합교육(Mainstreaming) : 장애인은 지역에 사는 한 시민으로 정상적(normalization)인 생활을 위한 정신적 물리적 환경에 통합되어 교육해야 된다.

2. 조사 대상 및 대상 선정

본 조사연구에서는 장애인 관련학과와 비관련학과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려 했다. 서울에서는 장애인 관련학과로 특수교육학과, 비관련학과로 산업 디자인과 금속 공학과를 선정하였고 김해에서는 장애인 관련학과로 물리치료과, 작업치료학과, 비관련학과로는 디자인학과와 생물학과를 선정하였다. 조사실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직접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유의적인 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방법과 자기 기입식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한 조사기간은 2001년 10월 1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방법은 두명의 연구자가 서울에 소재한 2개의 대학에서, 한 명의 연구자가 김해의 대학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배부된

설문지는 340부였으나 회수된 설문지는 328부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통계분석에 적합하지 못한 6부를 제외한 322부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측정도구

본 조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Siller가 개발한 DFS(Disability Factor Scales)를 번안한 장애태도 요인분석척도와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를 첨가하여 본 연구자가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척도는 8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었고 내용별 문항은 <표 II>와 같으며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 장애태도요인 분석 척도의 항목별 구성

하위척도	문항번호	문항수
무조건적인 거부	11, 17, 20, 27, 28, 33, 43	7
왜곡된 동일시	12, 19, 25, 34, 40	5
추론된 정서장애	3, 5, 10, 23, 29, 32, 35, 37	8
손상되지 않은 타기능의 제한	7, 9, 14, 16, 31, 38	6
권위주의적 태도	4, 18, 22, 39	4
친교의 거부	2, 6, 8, 21, 24, 36	6
접촉시 긴장	1, 13, 15, 26, 30, 41, 42	7
통합교육	44~50	7
총문항수		50

Siller와 그의 동료들의 신뢰도 검증 결과 +.73에서 +.87의 높은 신뢰도 계수를 보였다. 장애태도요인 분석척도는 5점척도로써 질문에 대한 응답은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보통이다. 4)그렇지 않다. 5)절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도록 되어 중립적인 응답을 피하도록 했다. 본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 항목으로는 성별, 지역, 종교, 장애인, 가족, 친구, 직장동료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항과, 자원봉사 경험유무와 접촉빈도 기간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하여 총 설문지의 문항수는 장애태도요인 분석척도 50문항과 함께 5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들의 인구,

사회학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가설인 장애인 관련학과와 비관련학과, 자원봉사 경험유무와 접촉빈도기간, 주변에 장애인 유무에 따른 태도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들 변수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집단간의 점수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사회과학을 위한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인 SAS를 사용하였다.

IV. 결 과

설문 조사는 장애인 관련 학과와 비관련학과, 자원봉사 경험 유무와 접촉 빈도 기간, 주변인 장애우 유무가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고,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인 사항의 분포

본 연구의 대상자인 장애인 관련 학과와 비관련학과의 인구, 사회학적인 사항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표 I-1〉 성별

내 용	빈도(명)-남(여)	백분율(%)-남(여)	무응답
관련학과-남(여)	163-34(117)	50.6-11.07(38.11)	
비관련학과-남(여)	159-70(86)	49.4-22.80(28.01)	15명
전체-남(여)	322-104(203)	100-33.88(66.12)	

설문지 응답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1-1〉에서 총응답자 322명중 관련학도가 163명 (50.6%)비관련학도가 159명 (49.4%)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성별로 관련학도는 남자 34명 (11.07%), 여자 117명 (38.11%)으로 여자가 3배이상 많았고 비관련학도는 남자 70명 (22.80%), 여자 86명 (28.01%)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전체에서는 여자가 2배정도 많았다.

〈표 I-2〉 장애인 관련 자원봉사 경험유무

내 용	빈도(명)-유(무)	백분율(%)-유(무)	무응답
관련학과-유(무)	159-133(26)	50.32-42.09(8.23)	
비관련학과-유(무)	57-50(107)	49.68-15.82(33.86)	6명

〈표1-2〉에서 장애인 관련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이 관련학과는 133명 (42.09%), 비관련학과는 50명 (15.82%), 경험이 없는 학생은 관련학과 26명 (8.23%), 비관련학과는 107명 (33.86%)으로 관련학과의 자원봉사경험이 비관련학과보다 2배이상 많았다.

〈표 I-3〉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의 접촉빈도 기간

내 용	빈도(명)-관련(비관련)	백분율(%)-관련(비관련)	무응답
6개월이하	102-69(33)	56.7-33(18.3)	
6개월-1년	17-11(6)	9.4-6.11(3.33)	3명
1년-2년	30-25(5)	16.7-13.89(2.78)	
2년이상	31-29(2)	17.2-16.11(1.11)	

〈표1-3〉에서는 〈표1-2〉의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 183명중 3명이 무응답으로 180명의 분포를 살펴보면 6개월 이하가 102명(50.7%), 6개월-1년이 17명(9.4%), 1년-2년이 30명(16.7%), 2년이상인 31명(17.2%)이었다. 관련학과와 비관련학과를 비교해보면 6개월이하가 69명(33%), 33명(18.3%), 6개월-1년이 11명(6.11%), 6명(3.33%), 1년-2년이 25명 (13.89%), 5명(2.78%), 2년이상인 29명(16.12%), 2명(1.11%)으로 접촉빈도 기간이 길수록 관련학과 학생들이 많았다.

〈표 I-4〉 가족, 친구, 주변인 가운데 장애인 여부

내 용	빈도(명)-관련(비관련)	백분율(%)-관련(비관련)
장애인 유-관련(비관련)	85-55(30)	28.6-18.5(10.1)
무-관련(비관련)	212-100(112)	71.4-33.7(37.7)

〈표1-4〉에서 가족, 친구, 주변인 가운데 장애인 여부에서는 주변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가 85명(28.6%), 장애인이 없는 경우가 212명(71.4%)이었다. 관련학과와 비관련학과를 비교해보면, 주변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55명(18.5%), 30명(10.1%), 장애인이 없는 경우는 100명 (33.7%), 112명(37.7%)으로 관련학도가 주변에 장애인을 접촉할 기회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2. 배경변인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배경변인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분석을 위해 배경변인 즉 장애인과 관련된 학과와 비관련학과, 자원봉

사 경험유무와 접촉 빈도 기간, 주변장애인에 유무 등에 대한 태도를 t-test와 ANOVA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1〉 장애인 관련학과와 비관련학과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장애태도요인 분석척도	유		무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무조건적인 거부요인	23.82	3.74	22.22	3.15	4.05*
왜곡된 동일시	16.44	2.86	16.50	2.71	-0.22
추론된 정서 장애 요인	26.83	3.76	26.17	2.85	1.73
손상되지 않은 타기능의 제한요인	22.59	2.64	21.67	2.58	3.08*
권위주의적 태도	12.46	2.07	12.72	2.26	-2.32*
친교의 거부	21.87	2.57	20.35	2.56	5.18*
접촉시 긴장 요인	25.63	2.67	23.85	2.80	3.74*
통합교육	17.32	5.10	19.78	5.09	-4.21*
총태도 점수	166.22	12.26	162.98	10.98	2.33*

* p<.05

장애인 관련학과와 비관련학과의 장애인 태도 점수차이는 〈표 II-1〉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인 무조건적인 거부요인, 친교의 거부, 접촉시 긴장 요인은 각각 t=2.5, 3.03, 3.58로서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태도점수에서는 관련학과와 비관련학과간에 t=1.54, p=0.12로 유의수준 p<.05보다 크므로 가설 I 을 기각하지 못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2〉 장애인 관련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

장애태도요인 분석척도	유		무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무조건적인 거부요인	23.82	3.74	22.22	3.15	2.15*
왜곡된 동일시	16.44	2.86	16.50	2.71	0.66
추론된 정서 장애 요인	26.83	3.76	26.17	2.85	-1.23
손상되지 않은 타기능의 제한요인	22.59	2.64	21.67	2.58	0.72
권위주의적 태도	12.46	2.07	12.72	2.26	-1.60
친교의 거부	21.87	2.57	20.35	2.56	3.03*
접촉시 긴장 요인	25.63	2.67	23.85	2.80	3.58*
통합교육	17.32	5.10	19.78	5.09	-1.53
총태도 점수	166.22	12.26	162.98	10.98	1.54

* p<.05

장애인 관련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른 태도 점수차이는 〈표 II-2〉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인 왜곡된 동일시와 추론된 정서 장애요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총태도점수는 t=2.33, p=0.02로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 II 를 기각하였다.

〈표 II-3〉 자원봉사 접촉 빈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장애 태도요인 분석 척도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	F
무조건적인 거부요인	집단간	3	400.25	133.41	11.55*
	집단내	173	1998.71	11.55	
	전체	176	2398.96		
왜곡된 동일시	집단간	3	54.16	18.05	2.27
	집단내	174	1382.20	7.94	
	전체	177	1436.36		
추론된 정서장애 요인	집단간	3	65.36	21.79	1.54
	집단내	167	2367.46	14.18	
	전체	170	2432.85		
손상되지 않은 타기능의 제한요인	집단간	3	17.27	5.76	0.82
	집단내	174	1216.26	6.99	
	전체	177	1233.53		
권위주의적인요인	집단간	3	49.36	16.45	4.21*
	집단내	175	684.70	3.91	
	전체	178	734.06		
친교의 거부	집단간	3	112.63	37.54	5.90*
	집단내	168	1069.88	6.37	
	전체	171	1182.51		
접촉시 긴장요인	집단간	3	112.13	37.38	5.49*
	집단내	173	1177.61	6.81	
	전체	176	1289.74		
통합교육	집단간	3	117	1.48	
	집단내	175			
	전체	178			
총태도 점수	집단간	3	1923.93	641.31	4.42*
	집단내	153	22182	144.99	
	전체	156	24106.89		

* p<.05

자원봉사 접촉빈도에 따른 태도 점수차이는 〈표 II-3〉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태도의 하위영역인 무조건적인 거

부요인, 권위주의적인 요인, 친교의 거부, 접촉시 긴장요인은 각각 $t=11.55, 4.21, 5.90, 5.49$ 로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태도점수에서는 $t=4.42, p=0.0052$ 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Ⅲ을 기각하였다.

〈표Ⅱ-4〉 가족,친구, 주변인 가운데 장애인의 유무에 대한 태도

장애태도요인 분석척도	유		무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무조건 적인 거부요인	24.18	4.25	22.70	3.26	2.87*
왜곡된 동일시	16.62	3.08	16.40	2.70	0.57
추론된 정서 장애 요인	27.15	3.69	26.49	3.32	1.39
손상되지 않은 타기능의 제한요인	22.55	2.94	22.18	2.58	0.99
권위주의적 태도	11.70	2.06	12.60	2.18	-3.3*
친교의 거부	22.04	3.03	21.01	2.51	2.7*
접촉시 긴장 요인	25.34	2.63	24.32	2.80	2.94*
통합교육	17.21	5.76	18.63	4.96	-1.98*
총태도 점수	166.50	13.05	164.35	11.29	1.26

* $p<.05$

가족, 친구, 주변인 가운데 장애인의 유무에 대한 태도는 〈표Ⅱ-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무조건적인 거부요인, 권위주의적 태도, 친교의 거부, 접촉시 긴장요인, 통합교육에서 각각 $t=2.87, -3.3, 2.7, 2.94, -1.98$ 로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태도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장애인을 위해 치료 교육하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과 비관련학과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알아보고, 일반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과의 접촉을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장애인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경험적 조사연구를 통하여 장애인과의 접촉이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경험적 조사연구에서는 김해와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서 관련학과와 비관련학과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도구는 siller가 개발한 DFS(Disability Factor Scales)를 번안한 장애태도요인 분석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직접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자기 기입식 질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집단간의 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 변량분석(one-way ANOVA)을 SA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총 배부된 설문지는 340부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328부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통계분석에 적합하지 못한 6부를 제외한 322부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가설 검증적 조사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장애인 관련학과와 비관련학과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서 하위영역인 무조건적인 거부요인, 친교의 거부, 접촉시 긴장요인은 각각 $t=2.5, 3.03, 3.58$ 로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태도점수에서는 관련학과와 비관련학과간에는 $t=1.54, p=0.12$ 로 유의수준 $p<.05$ 보다 크므로 가설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기각하지 못하였다.
- (2) 장애인 관련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서 하위영역인 왜곡된 동일시와 추론된 정서 장애요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총태도점수는 $t=2.33, p=0.02$ 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Ⅱ를 기각하였다.
- (3) 자원봉사 접촉빈도 기간에 따른 태도에서 하위영역인 무조건적인 거부요인, 권위주의적인 요인, 친교의 거부, 접촉시 긴장요인은 각각 $t=11.55, 4.21, 5.90, 5.49$ 로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태도점수에서는 $t=4.42, p=0.0052$ 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설Ⅲ을 기각하였다.
- (4) 가족, 친구, 주변인 가운데 장애인의 유무에 대한 태도에서 하위영역인 무조건적인 거부요인, 권위주의적 태도, 친교의 거부, 접촉시 긴장요인, 통합교육에서 각각 $t=2.87, -3.3, 2.7, 2.94, -1.98$ 로서 $p<.05$ 수준에서

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태도점수는 $t=1.26$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가설Ⅳ를 기각하지 못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무조건적인 거부 요인, 친교의 거부와 접촉시 긴장 요인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권위 주의적 태도에서는 관련학과와 비관련 학과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자원봉사 경험, 접촉 빈도 기간과 주변인 장애 유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통합교육에서는 자원봉사 경험과 주변인 장애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그 외는 차이가 없었다. 손상되지 않은 타기능의 제한 요인에서는 자원 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그 외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왜곡된 동일시나 추론된 정서 장애 요인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태도 분석요인에서 하위영역인 통합교육 요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두드러졌고, 다른 요인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활동대상, 주위에 장애인 가족, 친구 등의 존재여부)은 친교의 거부나 무조건적인 거부요인과 같은 이성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고, 간접적인 경험(자원봉사경험)과 관련해서는 친교의 거부, 접촉시 긴장요인에 의한 감정적인 태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도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형성을 위해 간접경험과 직접경험 모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가설 검증결과가 일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몇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우리 대학생들의 의식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정도가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자원봉사나 대학시절 동아리에서 봉사활동의 기회가 많이 주어져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대중매체의 효과로 보여진다. TV나 광고, 영화 또는 서적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간접경험과 이해정도가 많이 깊어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장애에 대한 이해정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산재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가 태도 증진을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

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가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하위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던 특징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국내에서 표준화된 일이 없이 연구자가 채용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문화적인 요인에 따른 차이 및 그 타당도 등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중환, 우리나라 부자유인 재활대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민은식, 장애자의 사회적 재활, 「부자유인의 재활과 복지」(민은식 선생 유고집), 삼육재활원; 1990.

손정대, 신체장애자에 대한 의식조사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이규태, 장애자 복지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구조, 「현대사회와 장애자복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1.

이익섭, 한국장애아문제의 이해, 「현대사회의 부자유인 복지」(지역지도자교육자료집), 서울특별시립남부장애자종합복지관; 1990.

이종남, 부자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정명희, 부자유인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S.Richardson, & J. Royce, Race and Physical Handicap in children's Preference for other Children, Child Development, 39, 1968.

A.Handler & Austin K, Improving Attitudes of High School Students toward Their Handicapped Peers, Exceptional Children, 47, 1980.

T.W.Jones, V.M.Sowell, & J.K.Jones et al Changing Children's Perception of Handicapped People, Exceptional Children, 47, 1981.

H.E.Yuker,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Methods, Psycometrics and Scales, 1988.